

“도교육청 슬림화로 학교업무 최적화”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조직·업무 재편해 학교현장 행정 부담 절감·교육 본연의 기능 강화”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도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해 학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의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편해 학교 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회계자침 간소화와 각종 행정 잡무 정비 등 불필요한 업



무를 줄이고 업무 지원 교사와 행정인력을 확충해 학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사업 선택제’를 확대하고 ‘업무 총량제’와 ‘정책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학교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정책사업을 줄여 도교육청 조직 슬

림화를 보완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민원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AI 푹딱이’도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행정 업무와 출결 관리 등 다양한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슬림화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재배치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교사는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상담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업무 인력을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학교 업무 구조를 최적화해 교사는 가르침에, 학생은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상산고 10개 만들기 자사고 확대 아니다”

이남호 선대위 “전북 교육 상향 평준화”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 선거대책 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JTJV 전주방송 교육감 토론회에서 천호성 예비후보가 이남호 후보의 ‘상산고 10개 만들기’ 공약을 자사고 확대와 사설화 교육으로 왜곡해 발언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호 후보 측은 ‘상산고 10개 만들기’ 공약이 특정 학교 유형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을 상산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북 교육 혁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거점 대학을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전북에서도 지역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지역 초·중·고 교육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학만 육성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며 “기초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재 유출을 막고 전북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천호성 후보가 해당 공약을 ‘사설화·엘리트 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도민을 오도하려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천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역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남호 선대위는 공약의 핵심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북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모든 고등학교 교육력을 끌어올려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찾아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대위는 “전북 교육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선거가 프레임 정치가 아닌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새학기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신학기 교육 분야 불가 관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신학기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고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차단하고 교육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고습비 과다 징수와 편법 인상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과 지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및 점검 대상은 등록된 고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와 교재비·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고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시서식 편의점’ 기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시 서식 편의점’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시 서식 편의점’을 개통해 교원들에게 공통 업무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자연어 질문을 통해 업무 매뉴얼을 검색하고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AI) 기능도 추가했다

이 같은 기능 개선에 힘입어 플랫폼 이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용자 수는 2024년 4,000명에서 2025년 1만8,000명으로 약 350% 늘어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 AI 성능 개선, 업무 서식 확대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최신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AI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현재 전북교육청 공식 매뉴얼과 지침 21종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정책과 사업 내용도 빠짐없이 반영할 방침이다

또 AI 답변 속도를 개선하고 처리 기능을 고도화해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업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 서식도 확대된다. 기존 학급 운영과 교과 운영 중심이었던 서식을 학교업무지원센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에듀페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서식 종류도 기존 80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중 AI 성능 개선과 서식 확대 개발을 진행한 뒤 현장 교원 점검단을 통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하반기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학교가 글로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캔바(Canvas)를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도입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에 나섰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디지털 교육 혁신... 우석대, 국내 대학 최초 ‘캔바’ 도입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

교직원 강의 자료 제작

행정 문서 시각화 등 활용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글로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캔바(Canvas)를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도입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에 나섰다

우석대학교 교육혁신분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캔바를 도입해 교직원들이 강의 자료 제작과 학

과·부서 홍보 콘텐츠 제작, 행정 문서 시각화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캔바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약 2억6,000만 명이 사용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문서와 프레젠테이션,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교육 자료 제작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도입을 통해 교수진과 교직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자료와 콘텐츠 제작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캔바 도입으로 교수진과 교직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는 이를 계기로 수업과 행정, 홍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급변하는 치안 환경 대응, 경찰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브리핑

“남원시 첨단 기술 기반 치안교육 연계 플랫폼 구축 가능”

남원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은 최근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 이슈브리핑을 발간하며 경찰교육 인프라 확충이 범죄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슈 브리핑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기반 금융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전문적 대응 역량과 교육훈련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인력 확대에 따라 교육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신입 경찰 채용 확대에 따라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충남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약 600명 규모의 신입 경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경찰 인력이 늘어나면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살인 사건 1건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사례도 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력범죄를 몇 건만 추가로 예방하더라도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여건도 비교했다. 국유지 활용 여부와 사업 추진 속도 국가 균형 발전 등이 주요 검토 요소로 제시됐다

특히 전북 남원은 약 166만㎡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로 평가됐다.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와 비교할 경우 약 262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특히 디지털·사이버 범죄 대응 교육, 재난·대테러 대응 훈련, 드론 등 첨단 기술 기반 치안 교육을 연계한 미래형 교육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치안 인프라 투자”라며 “충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를 통해 경찰 대응 역량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국가 치안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가 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배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 학생 사교육 참여율 전국 최저

도교육청, 학력향상 정책 등 중심 공교육 강화 ‘결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와 학력향상 정책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강화한 결과, 도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이 66.4%로 집계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5.7%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이어 전남이 68.1% 강원이 69.9%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82.6%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수치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전북형 늘봄학교와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꼽았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에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참여율과 만족도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공교육 중심 방과후 모델로 자리 잡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보충과 심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학력향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력향상 도전학교와 순수공부시간 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면서 공교육의 학습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조금 늘봄학교에서 시작한 중·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 새 진로 모델 마련

졸업생 27명, 올 원광대 농생명·바이오분야 계약학과 입학

전북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원광대학교 계약학과에 진학해 농생명·바이오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진로 모델이 마련됐다

이전 계약학과 운영은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 등 6개 기관이 지난해 10월 직업계고 지역정착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협약 이후 계약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농생명·바이오 분야 졸업 예정자 가운데 지역 기업에 취업한 학생 27명을 추천했으며, 이들 학생은 모두 계약학과 입학 전형에 합격했다

‘직업계고 지역정착형 계약학과’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 주중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1학년 등록금은 전북자치도와 대학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역 지원하며, 2~4학년은 한국장학재단의 고졸 후속승자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업·상업·가사 계열 등으로 계약학과 운영을 확대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선취업·후학습 경로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